

대구광역시

고흥무, 태왕 노기원 사생활 '폭로 전쟁' 극치...

고흥무, 폭로 초강수 L씨 태왕 계열 회사 소유 아파트 살아... 폭로논쟁 극에 달해 진실게임 그 끝은?

노기원 태왕 대표이사 고흥무 폭로 지속되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무고죄'로 고발조치... 더는 못참아 엄중경고

동흥건설 고흥무 대표가 (주)태왕이앤씨 노기원 대표이사를 향한 '폭로전쟁'이 극에 달하고 있다. 사실상 고 대표가 태왕 노 대표이사에게 서슬퍼런 칼날을 세우고 갑옷과

투구로 중무장한 채 백병전에 뛰어들어 사활전 항거이다. 고 대표는 17일 노 대표이사의 치부를 들춰내는 사생활을 추가 폭로했다. 추가 폭로 내용은 이미 지난 13일 수성경

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고 대표의 추가 폭로는 노 대표이사가 자신을 음해한데 "참지 않고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선언적 의미로 해석된다.

판도라의 뚜껑을 열 수 있는 '폭로 전쟁'이다.

고 대표의 고발내용에 따르면 "노 대표이사가 매년 L씨와 함께 해외 골프여행은 물론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적립된 VIP점수로 정선 하이원 리조트골프장을 이용했다"라고 밝혔다.

고 대표의 이번 추가폭로 고발 내용은 너무나 상세하다. 노 대표이사의 사생활을 조목조목 짚었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고 대표는 문제의 L씨는 사실상 노 대표이사의 내연녀라고 밝혔다.

고 대표는 "노 대표이사가 L씨에게 생활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L씨가 4년째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수성구 범어동 모 아파트도 태왕이앤씨 계열회사(주)H소유 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공인으로서 비윤리적 부도덕한 행위는 사회적 지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 대표의 초강수 폭로전과 고발 난타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본지는 노 대표이사와 전화통화에

서 L씨에게 제공했다는 아파트와 월 생활비어부는 전허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그는 L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임대계약서를 작성,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를 꼬박꼬박 받고 있는데 월세는 태왕 자회사로 입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대표이사는 "만약 고 대표의 폭로전이 계속되면 고 대표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무고죄로 고발조치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 대표의 각종 의혹을 밝히면 기자회견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본지는 고 대표의 비리내용을 지면에 낱낱이 실겠다고 약속했다. 김성용 기자

TK신공항 첨단산단에 4조원 규모 SMR 건설

대구시, 한수원 여러 차례 실무협의 거쳐 협약 체결

대구시와 한수원이 손잡고 TK신공항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미래 반도체 캠퍼스는 국가 안보나 산업 인프라 측면에서 분산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공함과 SMR을 가진 군위 첨단산단이 후방의 최적지가 될 수 있다. 군위 SMR 건설을 위해 정부는 물론 민간기업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17일 산적정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TK신공항 첨단산업단지 내에 국내 최초의 '680MW 소형모듈원자로(SMR, 주요 기기를 모듈화해 공장 제작이 가능한 전기 출력 300MW 이하의 원자로)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지난 5월 제11차 전력기본계획안에 SMR 1기 도입이 발의된 이후 가장 먼저 추진, 광역지치단체가 SMR 건설에 직접 나선 첫 번째 사례다.

시는 2년 전부터 군위신공항 첨단산단에 국내 첫 SMR을 건설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원자력연구원, I-SMR 기술 개발사업단 등과 논의해 왔다.

안전·경제·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외국 개발 모델이 아닌 우리의 혁신형 SMR(SMR)을 선택, 한수원 측과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업무협약에는 △TK신공항 첨단산업단지 내에 SMR 사업화 및 건설을 위한 터전·경제·타당성 조사 △SMR 상용화 노력 및 SSNC(SMR Smart Net-zero City, 스마트도시) 활용 탄소중립도시 조성 협력 △주민 수용성 제고 등 정책 활성화 등을 위한 공동 노력 등의 협력 사항을 담고 있다.

SMR은 기존의 대형 원자로에 비해 안전성과 효율성이 높고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보완 및 유연한 출력 구현, 전기뿐만 아니라 열 생산 및 공급, 수소 생산, 석탄 화력발전 대체 에너지원 등으로 각광 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80여개의 SMR 모델이 개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유럽, 중국 등은 2030년대 상업 발전을 목표로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

시는 한수원 및 민간건설사와 함께 사전 타당성 조사를 2026년까지 한다.

정부의 관련 절차에 맞춰 2028년 표준설계 인가를 받은 후 착공, 지난해부터 상업 발전을 시작한다.

새로 만들어지는 SMR 건설을 위한 SPC(특수목적법인)인 군위첨단산업단지 내 에너지생산지(50만㎡) 중 약 16만㎡(4만8000평) 부지를 유상 매입해 공사를 진행하며 총사업비는 4조원으로 전액 SPC가 조달하게 된다. 조여은 기자

대구시, 참여연대·경실련 사무처장 무고죄 검찰 고발

대구시는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과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무고죄로 17일 대구검찰청에 고발했다.

조 사무처장 등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대구TV'에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홍보동영상

을 게시하는 데 관여했다며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홍 시장은 '대구TV'를 이용해 업적을 홍보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2월 22일 대구참여연대에 의해 고발당했으나 대구경찰청은 올해 5월 7일 홍준표 시장이 업적 홍보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대구TV 동영상 대부분이 업적홍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리고 불송치 결정했다. 조여은 기자



칠곡군에 마련한 전국 최초로 랩 프로그램에 어르신들이 17일 무료 급식소에서 '랩'을 선보이고 있다. 무료 급식소 '칠곡사랑의 집'은 어르신들에게 점심은 물론 젊은 세대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랩'을 가르치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사진=칠곡군 제공)

예주 아주머니들 정말 큰일 해냈다

예주춤만타 2024 문화있는날 실버마크 공모에서 최종 선정 지역 아마추어 동호회로서 유일



'예주춤만타'가 2024 문화있는날 실버마크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

지역 아마추어 동호회로서 유일하다. 예주춤만타는 (재)영덕문화관광재단의 생활문화동호회다.

공모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했다.

지역 아마추어 동호회로서 유일하다. '2024문화있는날'행사의 일환인 실버마크는 인생의 제2막을 무대에서 즐기려는 신(新)노년 세대, 60세 이상 실버예술

가들의 거리공연으로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노년 세대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버마크는 수도·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제주권 등 4개 권역에서 진행된다. 공모전은 '뉴실버세대 대표하라'는 구호를 걸고 경상권의 실버예술가들을 모집했다.

1차 서류심사에서 67개 팀 중 24팀이 선발됐다. 2차 현장 오디션은 통해 최종 15개 팀이 선정됐다.

선정된 다른 팀의 경우 대부분 부산, 대구 등에서 활동하는 전문예술단체다.

반면 예주춤만타는 유일한 군 단위 아마추어 예술가로 열정과 패기에 찬 공연과 인터뷰로 오디션 현장을 압도,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예주춤만타는 창단 9년된 영덕의 대표적인 타악퍼포먼스 그룹이다.

예주춤만타는 영덕문화관광재단의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으로 진행 중인 생활문화동호회 육성 사업(우다다다파워업)에 선정, 공연과 역량 강화 활동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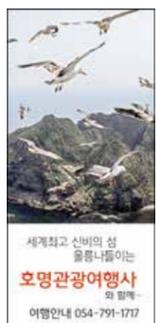
받는 동호회다. 예주춤만타는 '2024문화있는날 실버마크' 사업에 선정되면서 공연료, 무대, 홍보 지원, 예술가간 교류협력 지원을 받는다.

을 연말까지 경상권 각 지역을 돌며 총 10회 거리공연을 한다.

최종 선발된 15개 팀은 지난 15일 부산형 상산업센터 컨퍼런스홀에 모여 발대식을 갖고 첫 출사표를 던졌다.

예주춤만타의 안경희 대표는 "61-69 세까지 회원 7명이 '실버히어로'로서 경상 남북도 도시를 다니며 거리공연을 하게 됐다. 기쁘고 설레면서 걱정도 없겠다"며 운을 뗐다.

그는 "오디션, 인터뷰 등 힘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시니어 회원들의 자신감이 오히려 더 커져 있는 상태다. 실버마크 거리공연 활동이 앞으로 회원 모두에게 큰 경험으로 남을 것 같고 영덕의 다른 동호회들도 자국이 되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세계최고 신비의 섬 울릉나들이는 호명관광여행사 5월 17일 여행안내 054-791-1717



주낙영 경주시장은 18일 오후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제5회 예총예술제 개막식'에 참석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18일 오전 삼지파크골프장에서 열리는 제5회 영양군수기파크골프대회에 참석한다.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상주시 SANGJU CITY 그길같은 풍경에 상주하다 당신께 특별한 풍경힐링을 선물합니다!

종합

대구광역시

2024년 6월 18일 화요일 2

달성복지재단, 농가 일손 돕기 봉사활동

달성복지재단은 달성복지재단 수탁시설들과 지난 12일 일손이 부족한 달성군의 양파 농가를 방문하여 농촌 일손 돕기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달성복지재단 및 재단 수탁시설 소

속 직원들 40여 명은 영농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달성군 유가읍 가태리 지역의 장애인 농가를 방문하여 양파 수확을 도왔다. 참여한 직원들은 농가를 도와 양파 줄기 자르

기, 양파 뿌기, 양파 나르기 등 양파 수확에 손을 보태며 구슬땀을 흘렸다. 강성환 달성복지재단 이사장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달성복지재단은 앞으로도 농촌 일손 돕기를 비롯하여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동구청, 식품제조업체 제품 라이브커머스 방송 송출

식품제조업체 생산 판로 개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네이버 쇼핑 라이브 플랫폼 제품 판매 및 홍보 강화



동구청은 식품 유통 온라인 기반을 마련하고, 비대면·디지털화로 지역 식품제조업체 생산 제품 판로 개척을 위해 '식품제조업체 라이브커머

스 방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방송은 네이버 내 쇼퍼라이브 채널 '대구동구청'에서 송출되며, 업체당 1회씩 총 5회 송출된다. 박소윤 쇼호스트가 출연하며, 18일 시작해 8월 말까지 진행된다. 수제 오란다, 수제 쿠키, 진공 로스팅 드립백커피, 로스팅 원두, 더치커피, 떡볶이 밀키트, 프로폴리스 꿀 스틱 등 다양한 품목의 품질 좋은 제품을 선보이며, 제품 구매 시 무료배송 및 할인 등 구매 혜택도 있다. 참여업체는 올해 초 대상업체 모집공고 및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됐으며, △가톨릭대학교 △삼남 △삼진 △삼진푸드 △정신돈떡볶이 △농업회사법인(주)마이티푸드 등이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라이브커머스 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식품 유통 트렌드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관내 식품제조업체 브랜드 경쟁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하며, 동구의 식품 산업계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달성군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진로! 생각!' 운영

대구금포초등학교서 요리사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달성군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14일 진로 전문강사를 대구금포초등학교에 파견해 청소년이 가진 소질과 능력을 발견하고 경험의 가치를 높이는 '청소년 진로! 생각!'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구금포초등학교 5학년 16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날 강사는 요리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와 요리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설명하고, 청소년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참치 샌드위치를 함께 만들어보는 등 이론뿐 아니라 직접 체험해 보는 과정도 함께 진행하여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박성수 관장은 “달성군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학교와 청소년 네트워크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기회

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청소년 활동의 특성을 살린 체험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달성군청소년문화의집은 이미 교육을 마친 가창·왕산·금포초등학교와 농공·달서·서재중학교에 이어 경서중학교, 구지중학교, 동곡초등학교, 반송초등학교 등 10개 학교에 창의적 체험, 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진로체험 교육(특수분장사, 요리사, 마술사)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여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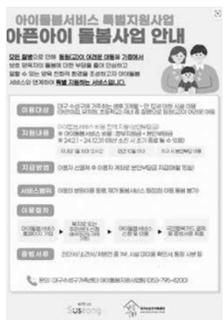
동구청, 신종 성범죄 및 4대 폭력 예방 교육

동구청은 지난 13-14일 양일간, 사회복무요원과 공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신종 성범죄 및 4대 폭력(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통합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허지환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전문 강사가 진행했으며, △거절에 민감해지는 다양한 방법 △성장형 젠더마인드셋 등을 강의했다. 동구는 4대 폭력 예방 사이버교육과 대면 교육을 함께 실시하여 폭력 발생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올바른 대응·조치를 통해

안전하고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석준 동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올바른 성인지 가치관을 확립하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성 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청은 이날 중 직장 내 스토킹 예방 지침을 시행하여 스토킹 고충 상담 창구 운영 및 피해자 보호조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 직장 내 스토킹 예방,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미경 기자

수성구, '아픈아이 돌봄지원사업' 공백 최소화

보호자 부재 시 아이돌보미 재가돌봄 5월까지 수성구 48가구가 서비스 이용



수성구는 지난 2월 대구시 최초로 운영을 시작한 '아픈아이 돌봄지원사업'이 자녀를 둔 양육자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아픈아이 돌봄지원'은 부모가 맞벌이 또는 급한 용무로 아픈 아이들을 돌보기 어렵거나 병원 동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아이돌보미가 보호자를 대신해 재가 돌봄과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수성구에 주소를 둔 취업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이다. 3개월 ~ 12세 이하 어린이집, 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질병과 같은 이유로 일일적인 돌봄이 필요할 때, 수성구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단 자녀당 하루 최대 12시간, 연간 10일 이내로 무료 서비스를 지원하며 이를 초과하면 본인 부담금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5월 말까지 48가구가 이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았다.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서 회원가입 후 수성구가속센터로 유선(☎ 053-795-4200) 신청하면 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아픈아이 돌봄서비스로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구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미경 기자

북구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우수지자체 선정 및 보건복지부 표창 수상

북구청은 최근 개최된 보건복지부 주관의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2차년도 계획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 14일 열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공유회에서 북구는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26곳 중 하나로 선정됐다. 이로써 대구에서는 북구가 유일하게 이번 표창을 수상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북구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중장

기 계획으로 2023년에도 대구에서 유일하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었다.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구민 모두가 함께 건강한 행복 북구'라는 비전을 세우고, 총 3개의 정책 전략과 10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19개의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1차년도(2023년) 자체평가에서 도출한 개선방안을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세부사업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으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우선순



위를 선정하고 주요 성과지표를 설정한 점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번 기관표창을 통해 구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미경 기자

군위군 윤복란씨, 제67회 보화상 효행부문 수상

시상금 전액 산성면지역 사회보장협의체 기탁 사랑나눔 모소 실천

군위군 산성면 화본2리에 거주하는 윤복란씨(61세,여)가 지난 14일 제24회 보화상 주관으로 개최된 제67회 보화상 효행상을 수상했다. 윤씨는 좋은 곳에 써달라며 산성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시상금 전액 80만원을 기탁해 주위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윤씨는 결혼과 동시에 시조모와 시부모, 시동생과 함께 살며, 맏며느리로서 중풍과 치매로 거동이 힘든 시조모 병수발을 물론 가정살림과 농사일까지 병행하며 젊은 시절을 보냈다. 어려운 형편에 농사와 마을 품앗이를 하면서도 1남1녀의 자녀를 훌륭하게 교육시키고 시동생까지 출가시켰으며 현재는 홀 시어머니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보살피면서 화본2리 부녀회장으로 마을 대소사와 환경정화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경로당 어르신들과 마을 독거어르신들을 위해 김차·밀떡·떡볶이 등 독거어르신들을 위해 김차·밀떡·떡볶이 등 헌신적 봉사활동으로 주변의 귀감이 되고 있다. 윤복란 수상자는 “주위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집안 어른 봉양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송구스럽고 감 감사하다. 앞으로도 어머니뿐 아니라 지역 어르신들도 성심껏 모시며 살겠으며 이번에 받은 시상금은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탁하게 되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박재성 기자

대구시, 과학기술 사업화 전문 인력 양성 지원...27년까지

대구시는 기술 실용화에 대한 이해와 기술이전·사업화 및 창업 전문지식 및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경북대학교 '지역 과학기술 성과 실용화 지원사업'을 지원한다.

'지역 과학기술 성과 실용화 지원사업'은 과학 기술 실용화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성과 실용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 과학기술 성과 실용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2027년까지 6년간 40억 원을 지원받으며 매년 40여 명의 석·박사 기술 실용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조여은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보

창간 199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발행인 김영숙 | 편집인 김성용 | 부사장 조여은 | 편집국장 김현석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임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 부 5,0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

대구광역시

2024년 6월 18일 화요일 3

iM뱅크 'iM Lucky 랜덤박스 행사' 실시

iM뱅크는 시중은행 전환 기념 대고객 감사제 'iM뱅크 Re-Born Festival'의 일환으로 iM뱅크 BC체크카드 이용고객 대상 최대 1백만원의 캐시백을 추천할 수 있는 'iM Lucky 랜덤박스' 이

벤트를 실시한다.

17~7월17일(수)까지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벤트는 iM뱅크 앱 이벤트 페이지에 응모 및 마케팅 동의를 한 이후 참여할 수 있다.

iM뱅크BC 체크카드 이용고객이 이벤트 기간 동안 1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1개의 스탬프가 지급된다.

스탬프 3개당 1번의 랜덤박스를 얻는 방식이다. 최저 1원에서 최대 1백만원까지 랜덤으로 캐시백이 전원 박스로 지급된다.



이만규 대구시의장 연임 절대 안돼... 의회 폭거

가열되는 대구시의회 의장 선출
김대현·박우근·박창석·이성오
윤권근·황순자 시의원 기자회견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시의원들(사진 왼쪽부터 이성오·윤권근·김대현·박창석·박우근)이 17일 오후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전례 없는 대구시의회 의장의 부당한 연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놓고 이만규 현 의장의 연임 반대 목소리가 들끓처럼 번지고 있다.

반대하는 시의원들이 후반기 의장 선출을 두고 벌이는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김대현·박우근·박창석·이성오·윤권근·황순자 시의원은 17일 오후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전례 없는 대구시의회 의장의 부당한 연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 연임은 부당한 권력의 집중"이라고 비난했다.

개인 사정으로 회견에 참석하지 못한 황순자 의원을 제외한 4명의 의원들은 "지방자치 시작된 1991년 이래 단 한번도 없었던 연임 금지의 불문율을 깨고 속칭 '의장감'이 없어서, 집행

부의 든든한 지원을 받는 의장'이라는 해괴망측한 궤변으로 권력 독식의 근거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임 금지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에도 30여년 간 관습법처럼 지키며 존중해 왔던 것은 엄청난 폐해 때문"이라며 "연임이 허용된다면 2년 간 주어진 공적인 의장 권한을 사적인 연임을 위해 부당하게 남용할 것은 명약관화"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장을 연임하지 않는다는 의회 권력의 원칙이 깨진다면 의회는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의원들 간 반목과 갈등으로 의회는 그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아 엄중한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회견문을 낭독했던 김대현 시의원은 기자회견 후 브리핑에서 "얼마 전 26명의 시의원들이 모여 현 의장의 연임을 추대·요구했는데 참석자 모두가 연임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한다"며 "추대를 원하는 이들이 원하는 대로는 (선거과정) 절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 중이나, 현 의장 추대 모임에 참석했던 분 중에서도 의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 것이고 저 역시 출마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25일 후반기 의장·부의장을 선출한 후 26일 각 상임위원장, 27일 운영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대구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선거일 2일 전 저녁 6시까지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해서 의장에 나설 이들은 22일 저녁 6시까지 등록을 마무리해야 한다. 조미경 기자

포항시, 폭염 대비 종합대책 추진 총력

9월 말까지 부서 협업
폭염 대비 T/F 팀 운영
전방위적인 폭염 대비

포항시가 여름철 폭염으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전방위적인 폭염 대비에 나섰다. 6월 초부터 기온이 30°C가 넘는 날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안전총괄과와 노인장애인복지과, 남·북구보건소, 농업정책과 등 관련 부서 협업 하에 폭염 대비 T/F팀을 폭염 대책 기간인 9월 30일까지 운영,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신속한 폭염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해 폭염 주의보·경보 발령 시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전광판이나 마을 방송 등을 통한 행동 요령 등을 전파한다.

장애인, 홀몸노인, 거동 불편자 등 폭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노인돌봄,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 담당 공무원 등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해 안부 전화, 방문 건강 체크 등을 한다.

온열질환 대비 예방수칙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독거노인과 장애인에 대해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폭염특보 발효 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한다.

냉방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 내 경로당 등 633개소에 실내 무더위 쉼터를 폭염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유동 인구가 많은 교차로 횡단보도 앞이나 교

통소에 신호대기 중인 보행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무더위 그늘막 쉼터 214개소(고정형 209, 스마트 5)를 운영한다.

냉난방이 되는 스마트버스 승강장을 29개소 운영, 시민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철길숲 내 쿨링로그 설치 및 도심 살수차 운영을 통해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 폭염 대책 기간 지역 응급의료기관(포항성모병원, 포항세명기독병원, 에스포항병원, 포항의료원, 좋은선린병원)과 협력해 온열질환자 발생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농어촌 지역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농업재해 대책상황실 운영 및 긴급 보고체계 구축을 통해 농작물 폭염 피해를 모니터링한다.

축산분야 폭염대책 T/F팀을 운영, 가축 관리 대책을 수립한다.

수산사무소 소속 어촌지도공무원의 양식어장 현장방문지도 등 어업인 대상 홍보도 강화한다.

양식시설에 차광막을 시설, 실내 온도 상승을 방지하도록 하고 수온·용존산소 모니터링과 질병 발생 시 신속한 전문가 처방 및 치료를 지원한다.

각종 작목반 교육 등을 통해 농어민 대상 폭염 행동요령 교육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긴밀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취약계층,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를 집중적으로 펼쳐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창명 기자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17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경북도 마을순찰대 발대식' 이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북도제공)

자연재난 인명피해 막을 방법은 주민대피가 '답'

경북도마을순찰대 발대식
역량 강화 공동연수 가져

'경북도 마을순찰대 발대식'이 17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마을순찰대원과 관계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발대식 후 여름철 풍수해 재난정후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자연 재난은 막을 수 없지만 철저한 사전 대비와 주민 사전대피로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여름 경북에서는 인명피해 제로(ZERO)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으로, 마을순찰대원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서 구심점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발대식에서 경북도 마을순찰대장은 은종현

경북자율방재단연합회장을, 22시군별군자율방재단장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최근 케냐, 중국 광둥성, 브라질, 파푸아뉴기니 등에서 폭우와 산사태로 많은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로 치닫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경북 북부지역 4개 시군(영주, 문경, 예천, 봉화)에서 6~7월 20일 동안 내린 비는 700mm 내외로 연평균(1,200mm정도) 강수량의 58%에 달한다.

29명의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인명피해를 막을 방법은 주민대피가 답이다"며, "도민 대피체계를 구축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

도는 1~5월까지 지형과 수리에 밝은 자율방재단, 이통장, 의용소방대 등을 주축으로 5,189개 마을에 2만 4,920명의 마을순찰대를 구성했다.

마을순찰대는 마을 내 예찰을 통해 위험징후 발견 시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즉시 주민대피를 시키는 등 재난 현장의 가장 가까이에서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마을순찰대원을 상대로 교육에 나선 경운대 전상철교수는 경북도에서 마련한 도민 생명보호 최우선 원칙인 경북형 주민대피 시스템(12시간 전 사전예보제, 마을순찰대 가동, 경찰·소방과 함께 강제대피를 위한 주민대피협의체 운영 등)에 대한 열띤 강의로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한국방재협회 소속 지민수 강사는 자율방재단 임무와 역할, 재난 및 안전관리 이론, 사례를 통한 재난관리 등을 통해 마을순찰대원들의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여름철 건강상식 및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으로도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마을순찰대원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윤용찬 기자

한수원, SSNC 조성 힘 모은다...

대구시와 SMR 협약 체결
청정한 에너지 공급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앞장...

한국수력원자력이 한수원이 17일 대구시청에서 대구시(시장 홍준표)와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자로)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일대 부지 적합성, 경제성 등 타당성 조사 △사업화 노력과 SSNC 활용 탄소중립도시 조성 협력 △주요 수용성 제도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혁신형 SMR 기본설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현재 정부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표준설계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협약은 한수원의 혁신형 SMR 사업화 전략과 대구경북통합신



공향 일대 저렴하고 청정한 에너지 공급을 통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대구시의 의지가 맞물려 추진됐다. 한수원은 앞으로도 혁신형 SMR 활용을 원하는 지자체 및 에너지 소비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윤용찬 기자

경북경찰, 교통안전시설 일제 점검·정비

노면표시 크기 확대
사업 올해 처음 시행

경북경찰청이 지자체 및 도로관리청 등 유관기관 함께 국도, 지방도, 시·군도에 설치된 표지판, 노면표시,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을 일제 점검 정비했다.

일제점검은 △노후·훼손된 교통안전시설 △법령 등 기준에 어긋난 시설 △교통사고 다발지역 원인 분석·개선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마실길(마을앞길 안전길) 확대 설치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점검을 통해 도내 총 3115곳 정비 및 차선 513km 재도색을 완료했다.

전년대비 신호등 및 안전표지 등은 약 1.7배, 차선 도색은 약 3배를 상향 개선 완료했다.

점검 세부내용을 보면 신호제어기 84기, 신호등 215명, 안전표지 826개, 노면표시 951개, 횡단보도 252개, 과속방지턱 307개, 기타(규제봉, 안전웬스 등) 457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23곳을 신설 또는 보수·교체했으며 차선 513km를 재도색 후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했다.

전체 교통사망사고 중 고령자 사망사고 비율(지난 5월말 기준 63.5%)이 월등히 높아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특성과 고령자 신체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둡고 협소한 시외지역 마을 도로에 발광형 표지판을 설치하는 마실길(마을앞길 안전길) 사업을 확대해 지난해 이어 올해도 21개 시군 110곳에 설치한다.

고령자 신체능력을 고려한 교통표지판 및 노면표시 크기를 확대하는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고령운전자 사고 잦은 지점, 교차로, 보호구역 등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선정해 교통표지판 및 노면표시를 기존 크기보다 약 1.3배에서 1.6배까지 확대 설치하는 방식으로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김성용 기자

국내 레지오넬라증 발생 수 매년 증가...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여름철 냉방기 가동으로 제3급 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 감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달부터 도내 종합병원, 대형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여름철 집중검사를 한다.

17일 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레지오넬라증 발생 수는 2021년 383명, 2022년 415명, 지난해 476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경북에서는 연구원이 지난해 1246건을 검사한 결과 140건(검출률 11.2%)에서 균이 검출됐다.

연구원은 검출된 시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결과를 통보해 청소와 소독 조치를 하도록 한 후 재검사를 하도록 한다. 송명주 기자



예천군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동아리연합회 발대식

예천군 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15일 북학커뮤니티센터 4층 다목적 강당에서 2024 청소년동아리연합회 발대식을 가졌다. 청소년동아리연합회는 지난 1일 회장 유건우

(경북일고), 부회장 권나현(풍천중), 기획부장 안도현(대창중)을 각각 선출했다. 발대식에는 예천군 청소년문화의집 소속 7개 동아리 70여 명이 참석했다.

동아리 소록 밴드 공연을 시작으로 △예천군 청소년문화의집 기관 및 지도사 소개 △동아리 운영 규정 및 활동 지원 안내 △동아리연합회 임원 소개 △삼동아리 소개를 했다. 지난해 청소년동아리 축제인 '소소한 축제'에 대한 활동과 2024 동아리 지원 사업 설명 등이 이어졌다.

예천박물관, '초암실기' 국역본 발간...

신종황제 하사 유엽배 역사적 가치 상징 담겨

예천박물관이 초암실기(草庵實記)를 국역본 출판을 발간했다. 초암실기는 예천 출신 초암(草庵) 정유운

(丁允祐, 1539~1605) 선생의 생전 글과 그의 충절, 명나라로부터 받은 유엽배(柳葉杯)에 대한 후대 인물들의 시문 등을 수록한 책이다. 정유운 선생은 1570년 문과에 급제 후 홍문관 수찬, 여주목사 등을 지내다 1592년 임진왜란 때 명나라 사신으로 가서 신종 황제로부터 버들

모양 술잔인 '유엽배'를 하사받았다. 명나라가 망한 후 영남 신비들은 유엽배를 안동 북두-난산, 영주 '대학연의'와 더불어 대명의리(對明義理)의 3대 상징물로 여겨 이에 대한 많은 시문을 남겼다. 문중에서는 초암공의 제사 때만 유엽배를 사용하는 등 귀중하게 보관하다 2020년 예천박물관에 기탁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초암 정유운 선생과 유엽배에 대해 많이 알려지지 않아 안타까웠다. 이번 국역본 발간을 계기로 그 의미를 재조명하고 지역문화 계승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천박물관은 '사시찬요', '대동운부군옥'

목판 및 고본 등을 활용한 학술연구, 예천 전통문화인 활소기의 역사와 전승에 관한 연구, '국파선생문집' 국역서 발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예천지역 사료와 인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지역의 가치 제고와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송명주 기자



▲ 상주시 새마을회 농촌일손돕기 ▲ 상주시 중동면 농촌일손돕기 ▲ 상주시 동성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제조작업 및 남천교 주변 정리 ▲ 낙동 복숭아

상주 들녘 농부들 얼굴 '웃음꽃' 만발

농촌일손돕기 구슬땀 낙동 복숭아 출하...

상주 농촌 들녘 농부들의 이마에 구슬땀이 흐르고 있다. 깨끗한 고을만들기, 농촌일손돕기가 한창인 탓이다. 상주새마을회, 바르게살기위원회, 공직자들이 총출동했다. 당도높은 낙동 복숭아를 출하, 농부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시질 않는다.

■상주새마을회

상주새마을회는 지난 14일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 화서면 상용리 소재 포도 농가를 방문, 포도순 작업 등 농촌일손돕기를 했다.

상주새마을회는 매년 농번기마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대상으로 일손돕기를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다. 농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작업에 필요한 각종 물품과 중간식 등을 직접 준비하여 새마을가족의 화합과 단결된 모습을 보여줬다.

이정희 회장은 "농가인구 감소와 농촌인력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현상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어 바쁜 영농철만이라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새마을지도자가 앞장서 농촌사랑 일손 돕기를 지속적으로 추진, 앞으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상주시 중동면

같은날 상주시 중동면도 중동면 회상리에 있는 농가를 찾아 양파 수확 작업을 거들었다.

농촌일손돕기는 중동면, 건실과 등 직원 16명이 참여, 인력난으로 일손 구하기가 어려운 고령의 농가를 찾아 구슬땀을 흘렸다. 일손돕기 지원을 받은 농가는 "바쁜 영농철 높은 인건비와 일손 부족으로 걱정이 많았는데, 적기에 양파 수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서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윤해성 중동면장은 "일손돕기에 참여한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직원들의 일손 돕기가 농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많은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화합하는 행정을 펼쳐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성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상주시 동성동 바르게살기위원회 10여 명이 도지정국가유산 주변 제조작업 및 남천교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도지정국가유산 무양동 석조기구는 비를 받쳐주던 거북모양의 받침돌로 1985년 8월 5일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29호로 지정됐다.

이날 동성동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는 국가유산 보호를 위해 제조작업 등을 실시, 국가유산 보존 관리에 한 몫했다.

남천교 주변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주민들과의 화합 및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썼다. 이경호 기자

박시호 바르게살기위원장은 "앞으로도 국가유산 보존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석환 동성동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문화재 보존과 환경정비를 위해 구슬땀 흘린 바르게살기위원회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소중한 마음을 이어 문화재 보존과 깨끗한 동성동 만들기 위해 힘쓰자"고 말했다.

■낙동 복숭아 출하

지난 14일 낙동면 성동리에 위치한 선과장에서 지역 농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 낙동 복숭아 출하식을 가졌다.

출하길에 오른 낙동복숭아는 약 100kg으로, 원예농협을 통해 시장에 공급된다. 낙동면 복숭아 현황은 25농가, 11ha로 생산되는 복숭아는 18brix 이상의 당도로서 지중으로 신선하고 무른 것이 없는 것이 장점이다. 정진웅 영지적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껍질에서 향이 나는 복숭아가 좋다"하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품질관리와 유통 다변화로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국 낙동면장은 "잦은 기상이변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품질 복숭아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복숭아 농가들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앞으로도 고품질 복숭아 생산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며, 더 많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칠곡 어른신들 타임머신 타고 50년 전으로

무료 급식소 칠곡사랑의 집 전국 첫 '랩' 프로그램 도입

취약계층 어른신을 대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무료 급식소에서 전국 최초로 랩 프로그램이 등장했다.

칠곡군 무료 급식소 칠곡사랑의 집은 어른들에게 점심은 물론 젊은 세대의 전유물만 여겨졌던 랩을 가르치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빠른 음악에 맞춰 랩을 하기 위해 급식소를 찾았다는 어른신이 있을 정도로 지난 4월부터 칠곡사랑의 집에서 운영하는 랩 프로그램이 호평 받고 있다.

어르신 합함을 도입한 칠곡사랑의 집의 풍경은 전국 어느 무료 급식소와는 사뭇 다르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 30분이면 12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두 자리에 앉았다.

이때부터 빠른 비트의 음악이 깔리고 급식소를 이용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가운데 젊은 시절 춤으로 이름을 날렸던 어른신이 앞으로 나와 분위기를 이끌어 간다.

어르신들은 머리 위로 손을 올리며 "헤이요!"를 외치고 세월의 시계를 50년 전으로 거꾸로 되돌려 놓는다.

5분에 걸쳐 어르신들이 랩을 하면서 얼굴에는 화색이 들고 본격적인 배식이 이어진다.

어르신들과 함께 70대 중반의 한 노숙인도 랩을 적극적으로 하며 젊은 날의 아름다웠던 추억을 떠올리고 있다.

칠곡사랑의집에서 랩을 도입했던 것은 칠곡군에서 살고 있는 할매 랩 열풍 때문이다. 군은 세계 주요 외신에서 'K-할매'라고 불리고 있는 평균연령 85세의 수니와 칠공주를 비롯해 다섯 팀의 할매 랩 그룹이 활동하고 있다.

권차남(여·75) 칠곡사랑의집 센터장은 랩이 어르신들에게 치매를 예방하고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권 센터장은 젊은 시절의 아름다웠던 추억과 밝은 미래를 노래하는 희망 사항이라는 제목의 랩 곡을 직접 만들었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어르신들 지도를 위해 사비를 들여 전문 강사를 찾아가 랩을 배우는 열정까지 보였다.

급식소를 이용하는 이숙자(83) 어르신은 "랩을 하면서 혼자 살고 있는 외로움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 명절 때 손주 앞에서 랩 실력을 자랑하고 싶다"고 전했다.

권 센터장은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와 함께 외로움과 고독을 달래고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랩을 시작했다. 마지막 남은 인생도 나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불태울 것"이라고 밝혔다. 조미경 기자

야구장 개장기념 김천시장이 야구대회 성료

김천야구장, 동호인 200여 명 참가 코오롱 야구단 우승 영예 안아...



제26회 김천시장이 야구대회가 신음근린공원에 새롭게 조성된 야구장에서 동호인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대회는 지난 16일 열렸는데 김천시가 주최하고 김천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관했다. 야구협회에 소속돼 있는 15개의 팀이 참가해 사전 예선경기를 치르고, 이날 4강전과 결승전이 펼쳐졌다. 대회 결과는 코오롱야구단이 우승을 차지했다. 스포츠이온스가 준우승, 몬스터즈와 빅스톤즈

가 공동 3위를 차지했다. 개회식 행사는 국민의례와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복합운동장 및 야구장 조성사업에 대한 경과보고와 김중섭 시장의 대회사 있었다.

이명기 시의장과 최한동 체육회장, 박선하, 최병근 도의원의 축사로 이어졌다.

전년도 우승팀인 클리퍼스 야구단의 우승기 반환, 선수대표 선서, 김천시야구소프트볼협회의 복지 성금 200만 원 전달식과 개장을 기념하는 테이프 커팅과 내빈들의 시구가 이어졌다. 행사 후에는 주요 내빈들이 경기를 관람, 복합운동장으로 이동해 시설을 견학했다.

김중섭 김천시장은 "야구인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야구 경기장이 조성돼, 마음 편히 운동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다.

시는 신음근린공원 조성 터내에 70여 명의 사업비를 들여 2만 3000㎡의 터면적에 기복식 건물 1개 동과 최장거리 122m에 전광판과 조명시설을 갖춘 야구장 2면과 1만 1㎡의 터면적에 FIFA 공식 규격 복합운동장 1면을 조성했다. 이경호 기자

이강학 경산시 부시장 ASF 방역 현장점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차단 총력 대응

이강학 경산시 부시장은 지난 16일 영천시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과 관련, 경산시가 인접 시군임을 감안, 휴일 방역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독려했다.

전날 영천시 화남면 소재 양돈농가(사육두수 2만 4622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었다.

사육중인 돼지는 긴급 행동지침에 따라 모두 살처분 조치 중이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5-17일 밤 10시 까지(48시간) 대구·경북 소재 돼지농장과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발효됐다.

경산시는 축산차량 소독을 위한 거점소독장 2개소 상시 운영 및 소독철저, ASF 소독약, 야생멧돼지 기피제, 생석회배부 등을 통하여 농가별 차단방역에 힘쓰도록 행정지원 중이다.

광역방역기, 소독차량, 축협공동방재단 차량을 이용한 양돈농가 주변 소독, 시·군·구·읍·면·동로 집중소독을 통하여 악성가축질병의 관내 유입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강학 경산부시장은 "경산 관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에 총력을 다 하겠다. 양돈농장에서도 돼지의 고열, 식욕 부진, 유산, 폐사 등의 의심 증상 발생 즉시 경산시 축산진흥과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미경 기자

문경 트롯가요제 대상 윤진우 3천만원 받았다

지난 15일 영강체육공원 야외공연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제2회 문경 트롯가요제가 막내렸다. 행사장에 무려 1만여 명이 참석 트롯 열풍을 더했다.

가요제는 지난 5월 진행된 1·2차 예선에 전국 각지에서 700여 팀이 도전장을 내밀어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보였다.

본선무대에 오른 12팀은 기성 가수 못지않은 무대매너와 시원한 가창력을 뽐내 큰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축하공연으로 박서진, 인순이, 인찬원이 초대가수로 출연, 참석자들에게 추억을 선물했다.

열린 경연 결과 영예의 대상은 가수 김희재의 '잃어버린 정'을 열창한 윤진우(서울)가 차지, 상금 3000만 원의 주인공이 됐다. 김동수 기자



안강읍,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안강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총총복지단'은 지난 14일 주거취약계층 3세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수리수리마수리' 사업을 실시했다. 대상자들은 고령의 어

신과 장애인 세대로 주택노후로 인해 도배지에 곰팡이가 피고 싱크대가 내려앉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운 세대를 선정했다.

장용득 안강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주거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한다"고 말했다. 수리수리마수리 사업은 주거상태가 열악한 취약계층 세대 집수리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척사항 어촌뉴딜 300사업 준공식이 17일 열리고 있다.

주낙영, 살기 좋은 부자 어촌 건설 총매진

경주척사항 어촌뉴딜 300사업 완공 주민 삶의 질 향상 생활여건 개선...

경주 척사항 일대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거듭났다. 시는 17일 감포 척사항에서 주낙영 시장, 임영훈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이영석 경상북도 환경동해지역본부장, 마을주민 등 200여명이 참여, '척사항 어촌뉴딜 300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어촌뉴딜 300사업 준공은 2021년 수렵항이

후 연동항(2023년), 나정항(2023년)에 이어 네 번째다. 시는 2021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68억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어항-안전시설 정비 △척사 및 고아라해변길 정비 △어촌활력 공간 리모델링 △정주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척사항은 잦은 월파, 진입부의 낮은 수심으로 어선의 정박과 진출입이 어려워 어업활동의 편의성과 안전성 확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북방파제 외곽으로 120개소 테트라포드 보강, 어항 내 준설, 선양장 증고(A=650m), 어업인 대기실 건립 등 어항기반시설 정비로 자연재난 대비와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항내 도난사고 방지 목적으로 CCTV 설치와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차막이 설치하는 물론 이동식 블라드도 조성했다. 오투2리에 위치한 고아라해변길은 보행자와 차량이동을 분리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했다.

그늘막 설치와 해안산책로 정비로 방문객들이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특화사업으로 협소하고 노후화된 오투2리동회관과 척사어촌계회관을 새단장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거점시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었다. 척사어촌계회관 2층은 어업활동 외 일자리 창출과 마을 소득 증대 목적으로 게스트하우스로 활용된다. 2022년부터 진행된 수산물 레시피 개발교육,

수산물 장터 시범운영, 소포장 패키지 개발 등 주민 소득 창출과 지속가능한 어촌개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운영체제도 마련했다. 주낙영 시장은 "척사마을은 송대말등대, 오투고아라해변 및 오투캠핑장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간직한 지역의 대표적인 휴양관광마을이다. 앞으로도 어항-안전시설 정비와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살기 좋은 부자 어촌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주 스포츠 중심도시 발돋움...

경주시장기 배구·테니스대회 동호인 '축제' 성황리 막내려

경주시장기 배구·테니스대회 성황리에 막내렸다.



제14회 경주시장기 배구대회가 지난 15일 금장중등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 개최됐다. 대회는 8개 팀 100여명의 지역 배구 동호인들이 참가해 그동안 다져왔던 기량을 확인하고 동호인 간 친목을 다졌다. 경기 방식은 여자선수 1명을 포함해 7명 한 팀으로 구성해 팀별 토너먼트를 진행했다. 대회결과는 △1위(the k-ing) △2위(the k-황과 함께) △공동 3위(서라벌 화랑, 황남오징어)가 각각 차지했다.

일 지역 시민테니스장과 강변테니스장에서 열렸다. 대회는 200여명의 지역 테니스 동호인들이 참가해 그동안 갖고 닦아왔던 실력을 마음껏 뽐냈다. 경기 방식은 단체전으로 치러졌다. 대회는 금배, 은배, 동배로 나눠 각 부별 5전(전 경기 복식) 3선승제로 경쟁해 최종 순위를 가렸다. 대회 부별 결과 금배는 △우승(계림클럽) △준우승(시민클럽), 은배는 △우승(경주클럽) △준우승(계림클럽)이 차지했다. 동배는 △우승(명문클럽) △준우승(푸르미클럽) △3위(월성ACE클럽)이 영광을 누렸다.

제19회 경주시장기 테니스대회가 지난 16

24억 투입... '구곡지 친수공간' 조성 탄력

구곡지 친수공간 이번달 말 준공

도시 속 평범했던 저수지가 아름다운 생태공원으로 재탄생했다. 경주시는 '구곡지 친수공간'을 이번달 말까지 준공한다. '구곡지 친수공간'은 경주시 용강동 구곡지 일대 1만 5000㎡ 부지에 습지공간, 조경트랙, 목교, 수변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24억원이 투입됐다. '구곡지 친수공간' 조성 사업은 2019년 11월

부터 주민설명회와 관련부서 협의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2022년 9월 실시설계를 완료, 같은 해 10월부터 공사에 나섰다. 이달 말 완공을 목표로 주차장 등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주요 시설물은 길이 176m 너비 3.6m 규모 타원형 조경 트랙, 길이 650m 너비 2m 황토 산책로와 운동시설과 파고라 등이다.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과 공용 화장실도 들어선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앞으로도 구곡지 친수



경주시 용강동 '구곡지 친수공간' 현장 모습

공간과 같은 도심속 쉼터를 추가로 조성해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도 웰빙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신라천년 경주서 한 달 살아보세요"

2024 2기 참가자 28일까지 모집 지역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

경주시는 오는 28일까지 '경주에서 한 달 살아

보기' 2024년도 2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경주에서 한 달 살아보기'는 경주에서 살아볼 수 기회를 제공, 인구를 늘리는 동시에 지역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은 202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79명이

참가해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 활동으로 경주를 알리는 효과를 톡톡히 했다.

선발 방법은 참가자가 선택한 분야별로 총 9개 팀을 뽑아 1팀 당 숙박비 최대 150만원, 체험활동비 최대 32만원을 지원한다. 체류기간은 8-10월 중 연속 21-30박을 선택할 수 있다.

유용찬 기자/사진 경주시제공

Advertisement for the 2025 APEC Summit in Gyeongju. It features the text '2025년 APEC 정상회의' and '경주 위치를 희망합니다' (We hope for Gyeongju's location). The background shows a traditional Korean palace at night with lights reflecting in a pond. Logos for '경상북도' and 'Golden City Gyeongju' are visible.

영덕 영양
청송 청도
울릉 울진



청송보건의료원,
재난의료대응 훈련

청송보건의료원은 최근 보건의료원 3층 회의실에서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2024 신속대응반 재난의료대응 훈련'을 했다.

경북응급의료지원센터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훈련에는 청송보건의료원 신속대응반 및 직원, 청송소방서, 경북응급의료지원센터 등 총 35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사상사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이송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재난대응 능력을 높이는 훈련이 진행됐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평상시 실천 같은 반복훈련을 통해 재난응급의료대응 능력이 향상될 바란다"고 말했다.



청도군, '행복감사찾기
스토리텔링' 운영

청도군은 지난 14일 청도평생학습복합관 다목적 강당에서 노년 의정신건강 증진 및 외로움 극복을 위한 기용이재와 함께하는 '행복, 감사 찾기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자살률은 38.0명(경북)으로 OECD 평균 11.1명보다 3배 이상 높았다.

2021년 노인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 자살생각 이유로 건강(23.7%), 경제적 어려움(23.0%), 외로움(18.4%)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어르신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외로움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학습복합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울진군, 매화나무
이름표 달기 행사

울진군 매화면의 '매화나무 이름표 달기' 행사가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 15일 열린 행사에는 약 200명의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참석, 매화면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참가자들은 각자 신중한 이름표를 매화나무에 달고, 본인의 매화나무에서 매실을 직접 수확하는 기회를 가졌다.

버스킹 공연, 프리마켓, 교복 체험 등의 부대행사를 즐겼다.

청송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총력전

인구감소 방지 지방소멸 대응...
투자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청송군이 인구감소 방지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2025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4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윤경희 청송군수 및 실과원소장 등 20여 명이 참석, 2025 청송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서 2025 청송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 최종보고와



윤경희 청송군수가 지난 14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2025 청송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사진=청송군 제공)

함께 배분·평가체계 기준 변경에 따라 그동안은

의된 투자계획의 방향과 전략, 발굴된 기금사업과 사업 간 연계방안 등 작성된 투자계획 전반사항에 대한 최종검토가 이뤄졌다.

이날 △청송 여성고정시설 유지를 통한 정주 인구 증대 방안 △청송사과를 포함한 각종 과수 재배기술의 스마트 기술개발 및 농산물 가공식품 연구개발을 통한 산업 혁신 방안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방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교육관광 활성화 등 지역의 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했다.

군은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

극 반영한다. 사업의 타당·효과·효율성을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와 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 투자계획을 작성해 이달 말 제출한다.

제출된 투자계획은 서면검토, 현장방문, 종합평가를 통해 기초기금심의위원회에서 오는 11월 최종 결정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사업전략을 수립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활력을 불어넣고 누구나 살고 싶은 청송군의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기금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병문 기자**

손병목 울진군수, 울진농업 대전환'박차'

울진군은 지난 14일 평해읍 직산리 남산들 일원에서 공동영농 이모작 생산단지 농산물 수확 및 파종연습회를 가졌다.

연습회는 군 관계자와 관내 농업인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계작물인 밀 수확과 하계작물인 콩 및 가루쌀 파종 시연을 하여 기존 일모작 대비 공동영농 기계화이모작재배의 소득향상 및 효율성을 강구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농업 대전환 시범단지로 조성된 평해읍 공동영농단지는 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행복농촌들기(대표 이명창)에서 운영하고 있다.

기존 일모작만 했던 벼 재배 필지(약 140ha)에 작년 가을 벼 수확 후 동계작물(조식료, 밀)을 파종하여 올해 수확, 바로 이어서 하계작물(콩, 가루쌀)을 파종, 올 가을에 수확한다.

수확된 동계작물 중 조식료는 관내 축산농가에 판매하고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폐하퇴비를 시범단지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화학비료를 절감하는 저탄소농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



청도 매전중, '2024 교내 영어체험활동'

청도 매전중학교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교내 영어체험 활동'이 인기가 있다. 원어 민 영어보조교사와 본교 영어교사의 진행으로 실시한 영어캠프는 농촌 소재 소규모 학교의 특성을 반영, 전교생 중 대부분이 참여, 영어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영어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시간이 됐다. 김기빈 교장은 "이러한 체험활동으로 영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고 실생활에서의 활용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사진=청도교육지원청 제공)

영양군,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운동 활화산

2024년 제2차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운동 실시

영양군의 '2024 제2차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운동'이 활화산이다.

헌혈 운동은 18일 군청 앞뜰과 멸종위기종 복원센터에서 대구경북 혈액원의 헌혈 버스 2대를 지원받아 직원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했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수혈 인구 증가, 저출산으로 인한 혈액 수급 위기 상황을 우려, 지역민의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지 않고 안정적인 혈액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됐다.

18일 오전 10~오후 4시 30분까지 영양군청 앞뜰에 헌혈 차량을 배치 운영(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한다.

영덕군, 어르신들이 행복한 지역공동체 건설

뼈까뻛씩 새인생! 찾아가는
목욕 지원사업이 인기 절정

영덕군이 마련한 '뼈까뻛씩 새인생! 찾아가는 목욕 지원사업'이 인기 절정이다.

영덕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분과는 지난 16일 강구면 원직리 마을회관에서 자원봉사자 30명이 참여, 찾아가는 목욕 지원사업을 했다.

사업은 교통이 불편한 관내 오지마을의 돌봄 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동 목욕, 머리 손질, 건강 마사지, 치매인지 검사 등의 봉사도 곁들였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돌봄 문제를 해소한다.

노인분과는 영덕군재가장기요양협의회의 중계로 100세강구재가복지센터, 한울타리재가복지센터, 한국돌봄협동조합가 지원받는 이동 목욕 차량을 3대 제공받았다.

헌혈을 희망하는 만 16세 이상 69세 미만(65세 이상은 60~64세까지 헌혈유경험자에 한함)의 건강한 국민이면 누구나 간이 검사 후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

장기기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 희망 등록 활성화를 위해 홍보 계몽운동 함께 한다.

장기 등 인체조직기증희망자 등록도 함께 실시, 새 생명을 이어주는 희망의 씨앗을 심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장여진 보건소장은 "이번 헌혈 행사를 통해 안정적인 혈액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용동 기자**

청도군, 자매결연 도시
교류행사 활발

청도군 각박면은 지난 14일 이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새마을3단체 회장과 함께 자매결연 도시 대구시 중구 동인동을 방문해 교류행사를 진행했다.

각박면과 대구시 중구 동인동은 2019년 10월 8일 자매결연 협약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교류가 있었다.

지난해 11월과 2024년 3월 벚꽃축제 때에도 동인동 민간단체장들을 초청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류한 바 있다.

방문은 동인동의 초청으로 기관장과 협의단체장 등 20여 명이 동인커뮤니티센터를 방문해 동인동 소개와 동인동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중구의 대표적 관광지인 근대문화골목과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을 방문했다.

상호협력의 뜻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기탁(어게동무기부)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하기로 했으며, 농산물 판매 및 농촌일손돕기에도 협력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했다.

박찬주 동인동장은 "이번 교류행사를 마중물 삼아 지역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여 소중한 인연이 변함없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우수택 각박면장은 "농촌일손돕기를 비롯한 농산물 직거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 봉사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만든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전했다. **조여은 기자**

청송초,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금상 수상

청송소방서는 지난 12일 경북도청 동력관에서 열린 '제24회 경북도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 청송소방서 대표로 참가한 청송초등학교가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회는 21개 소방관서 대표팀(유치부 12팀, 초등부 9팀) 약 500여명이 참가했다.

소방동요를 통해 꿈과 희망을 노래하고 안전을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송초는 초등부 중 7번째로 무대를 선보였다.

'꿈의 나침반'이라는 경연곡으로 '참삼의 힘을 키우는 행복한 학교'를 비전으로 '신나는 교실, 소통하는 학교, 함께 여는 미래'를 만들고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즐거운 무대를 선보였다.

문정환 고령소방서장은 "이번 경연대회 준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청송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안전을 배우고 좋은 추억을 쌓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윤병문 기자**

울릉군, 쾌적한 주민생활공간 만들어요

울릉군이 최근 북면 주민자치센터에서 2024 좋은간판 나눔프로젝트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좋은간판 나눔프로젝트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주관으로 지역별 25개 이내 업소 대상으로 지원예산 기금 40%, 군비 60%로 업주의 자부담 없이 추진된다.

군은 공모를 통해 천부리가 울레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군은 지역과 업소의 특색에 맞춰 독창적으로 디자인한 간판을 옥외광고물법의 표시방법에 맞게 개선해 쾌적한 주민생활 공간을 조

성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초점을 뒀다.

간판 디자인은 부산대학교 디자인학과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디자인업체(쥬킴스힐)의 경험, 업주들의 의견을 더해 최종 결정된다.

이번 1차 디자인 시안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부거리가 좋은간판 프로젝트를 통해 특색이 담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 상권에 활력이 더해질 것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윤환 기자**

김충섭 김천시장은, 김천 21세기 대표 K-관광도시 건설

창의적인 신규 관광사업 발굴 지속적인 노력 기울여 김천이 한국의 대표 체류형 관광도시 탈바꿈...매력적 관광자원 개발 새로운 관광콘텐츠 발굴 추진

김충섭 김천시장이 김천 21세기 대표 K-관광도시 건설에 총매진하고 있다.

끊임없이 발전하는 관광콘텐츠로 다시 오고 머물고 싶은 김천을 만들고 싶은 마음 간절하기 때문이다.

김시장은 "체류형 관광도시"는 한두 개의 신규 관광자원 조성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창의적인 신규 관광사업 발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김천시가 대한민국의 대표 체류형 관광도시를 건설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때문에 시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체류형 관광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매력적인 관광자원 개발과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있다.

올해 대한민국 제1호 휴게소인 경부고속도로 추풍령휴게소(하행선)에 어드벤처, 질코스터 등을 포함한 '추풍령 테마파크', 직지사권의 기존 관광자원들을 연계한 '사계절 썰매장', 김천만의 특색있는 방식을 도입한 '위케이션' 등 참신한 관광콘텐츠로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24시간 관광도시 김천

시는 체류형 관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자원 간 연계에 중점을 두고 신규 관광자원 조성을 추진 중이다.

지역의 주요 관광 권역인 직지사권 관광지와 연계한 신규 관광자원 개발을 목표로 '사계절 썰매장'을 조성했다.

총 길이 123m의 6개 레인, 대기자를 위한 넓은 워터, 화장실, 샤워장 등을 비롯, 총 5750㎡ 규모로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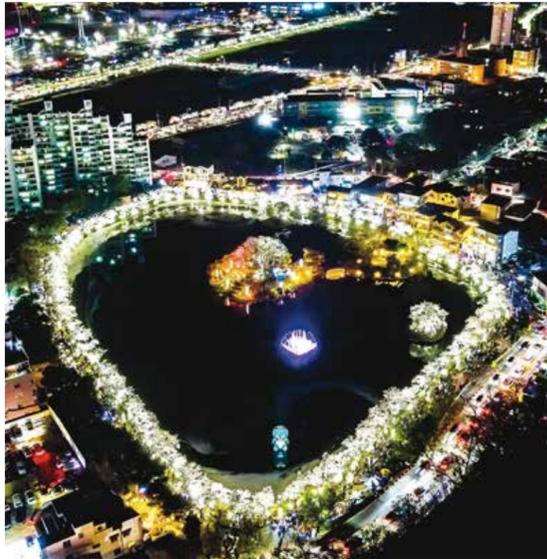
특히 공법으로 특정 계절에 국한되지 않고 1년 내내 운영할 수 있다.

김천을 찾는 관광객은 언제든지 사계절 썰매장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직지사권에 조성돼 있는 전통한옥촌 숙박시설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기존 4개동 7객실을 14개동 19객실로 증설해 늘어나는 관광 수요에 대비한다.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을 위한 맞춤형 연계 관광자원 개발도 놓치지 않았다.

대한민국 제1호 휴게소인 경부고속도로 추풍령휴게소(하행선)에 아이들을 위한 어드벤처 시설, 스틸 넘치는 질코스터,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메인센터 등을 보유한 77,469㎡ 규모의 추풍령 테마파크를 지난 5월 말 개장해 운영하고 있다.



연화지 야경



사명대사공원 야경



추풍령테마파크



김천의 빛과 풍경

야간 관광도시 김천

김천관광의 또 하나 핵심 키워드는 야간 관광 콘텐츠이다.

지난해 11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공동 주관으로 실시한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에 교통 연화지 등 관광지가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다.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은 전국의 야간관광 콘텐츠를 발굴·활성화하기 위해 다채롭고 매력적인 지역 야간관광지 100개를 선정하는 공모 사업이다.

전국적인 벚꽃 대표관광지로 소문난 '교통 연화지', 랜드마크이자 포토존이 매력적인 황금빛의 평화의 탑이 있는 '사명대사공원'이 그 주인공이다.

공모 선정으로 한국관광공사 누리집 '대한민국 구석구석' 테마 페이지 등재되고 광역권 관광자원 공동 홍보·마케팅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

시는 직지문화공원에 '김천의 빛과 풍경'을 주제로 야간경관조명·조형물·포토존 등을 설치, 최근에는 미디어아트 보도블럭까지 보강하는 등 야간 관광자원 조성에 노력을 기울였다.

"디지털 야간 경관사업에 따라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관내 주요 관광지 일원 '미디어파사드 시설'도 조성하고 있다.

일일 & 관광 모든 것을 김천에서

시는 '관광이 일상이 되고, 일상이 관광'이라는 모토로 신규 관광 콘텐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롭게 떠오르는 관광 트렌드인 위케이션을 김천만의 특색있는 스타일로 재해석한 관광상품으로 '2024 위케이션 in 김천'을 도입하여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2024 위케이션 in 김천'은 관외 관광객(개인 사업자, 기업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3개의 권역

(직지, 부항, 증산)에 수도산 자연휴양림, 사명대사공원 한옥숙박동, 부항댐 생태휴양펜션 등을 활용, 인근 놀·볼·먹거리 등 오로지 김천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내 교육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김천관광도 눈여겨 볼만하다.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 김천의 주요 관광지를 체험하는 현장학습형 관광 프로그램으로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연평균 1만여 명의 교육생이 다녀간다는 것에 착안하여 고정 관광객을 확보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사업으로 김천을 제대로 느낀 교육생들이 교육을 마치고 돌아가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 지인·가족들의 2차, 3차 방문도 기대하고 있다.

꾸준히 발전하는 관광콘텐츠

교통 연화지는 지난해 3주라는 짧은 기간에

도 21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찾아올 정도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벚꽃 명소다.

올해도 그 명성을 이어가 벚꽃 개화기간 전후 3주 동안 20만명이 방문했다.

그 중 12만명은 관외 관광객으로 집계됐다.

그 중심에는 전년도 부족했던 관광객 수용 태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지난해 접수된 각종 민원(교통, 안전사고, 청결, 편의시설) 사항에 대비해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안전요원을 두 배로 늘렸으며, 위험에 노출된 연화지 인근 좁은 차량 통로를 일부 통제하여 관광객들의 안전을 대비했다.

환경정비 인력 상시 배치·임시화장실 설치·시설의 공간정장 운영 등 깨끗하고 즐거운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연화지 상인연합회는 주변 노점상들의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는 등 관광객 맞이에 최선을 다했다.

시는 기존 진행해 오던 대표 관광콘텐츠인 '김천 시티투어'의 운영 방식을 교체, 전문성 있는 지역 특화 관광상품 개발이 가능한 전담여행사 2곳을 선정했다.

이들은 올 한 해 동안 김천형 관광상품 개발, 온오프라인 홍보 및 관광객 유치 등 외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고, 시는 관광상품 운영비, 홍보마케팅비, 문화관광해설사 안내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관내 주요 관광명소 20곳 중 8곳 이상 방문한 후 스탬프를 획득한 관광객에게 기념품을 지급하는 '김천관광 모바일 스탬프투어'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신규 관광명소 추가를 고려하고 있다.

올해는 특색있는 우리 지역만의 고유 축제를 새롭게 유치할 계획이다. 지역명인 '김천'이 '김밥 천국'의 줄임말로 통용되는 것에서 착상을 얻어 오는 10월 '2024 김밥 축제'를 연다.

이색김밥 콘테스트, 팝업스토어, 각종 체험 행사를 추진한다.

지난 5월에는 경북도와 협업,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웰니스 관광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한 '2024 웰니스 관광 페스티벌'을 김천 사명대사공원 일대에서 개최한 바 있다.

김천 관광 5개년 개발계획

시는 관광산업이 미래의 먹거리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의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위한 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시는 계획이 모든 관광 개발의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5년을 대비, 전문학술기관의 용역을 통해 김천시 관광 개발 전반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역 관광자원 개발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체계적으로 분석, 2027년 수립될 8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김천만의 특색있는 신규 관광자원 개발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경호 기자

민생을 최우선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청도군의의회

청도읍성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외로 70 청도군의의회 054-370-6404